



유용 드러낸 제1도크 건설 현장 해남군 화원반도에 위치한 대한조선이 세계 최대의 도크시설을 구축, '글로벌 넘버원' 조선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선박 건조에 들어갈 예정인 제 1도크 건설 장면.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해남에 세계 최대 조선소 만든다

대한조선이 해남군 화원반 화원반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만든다. 대한조선은 1·2차에 걸쳐 화원반도 140여만평 부지에 조선소와 함께 부품·블럭공장, 해양플랜트 시설 등을 설립, '글로벌 넘버원'에 도전한다. <관련기사 3면>

오는 7월 가동에 들어가는 제 1도크에 이어 2008년 말 준공예정인 제 2·3도크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로, 벌써부터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 2·3도크는 각각 길이 540m×폭 132m로, 현대중공업 제 3도크의 640m×92m를 앞선다. 선박 건조 마무리 단계에서의 필수 시설인 외장 안벽길 이도 5.2km에 달해 현대 5.05km, 삼성 5.016km를 능가한다. 외형적인 수치 외에 실질적으로 조선소 규모를 가능케 하는 연간 건조능력도 대한조선이 420만CGT(compensated gross tonnage·표준화물선 환

대한조선, 화원반도에 140만평 규모 연간 420만 CGT 건조, 현대중 능가 고용효과 6만...서남권 성장엔진으로

산톤수)로 단연 선두다. 현대중공업 270만CGT, 삼성중공업 225만CGT, 대우조선해양 170만CGT 순이다. 대주그룹 조선사업부문 박재영 부회장은 "1도크 준공을 앞두고 지난해 이미 17만5000DWT(deadweight tons·제화중량톤수)급 8척(5억7천만불)을 수주, 대한조선의 앞날을 밝게 했다"면서 "도크 건설과 함께 2009년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업에서는 해수면 11만평, 육지 40만평 등 51만평에 부품공장, 해양플랜트 전진기지를 건설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소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대한조선은 2012년까지 벌크

캐리어·중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수주, 연간 4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 또 2013년부터 대형 컨테이너·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수주 프로젝트를 전환한데 이어 호화유람선·고속여객선 등으로 지평을 넓혀 2015년부터 연간 매출 1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대한조선 가동에 따른 직·간접 경제효과도 엄청나다. 1·2차 사업이 성립에 필요한 직접고용인력 3만명,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인력 3만명, 가족 등 3만~4만명을 합쳐 조선소 관련

경제활동인구만 10만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6조원 매출을 올린 대우조선해양의 직간접 고용인력이 거제시 인구 20만명의 45%인 9만명을 웃돌고 있는 것만 봐도, 대한조선 역시 또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매달 900억원의 급여액을 지역에 쏟아내고, 거제시 세수입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조선소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송민호 사장은 "대한조선소가 인근의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단내 관련업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수출 증대 등 시너지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화원반도는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서남해역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與 23명 탈당... 제1당 붕괴

주말 추가 탈당...내주 교섭단체 구성

김한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6일 집단 탈당, 사실상 여당의 분당이 현실화됐다. 김 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23명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우리당 탈당과 '국민통합신당' 창당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탈당파 의원들은 '참회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국민통합신당'의 밑받침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이로써 영동연, 최재천, 천정배 의원 등 기존에 탈당을 결행한 6명의 의원까지 포함하면 이날까지 여당을 떠난 의원은 모두 29명이다.

그러나 이상경, 안민석 의원 등도 주말에 탈당해 천정배 의원 측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4일 전당대회를 전후해 임종석, 송영길 의원 등 재선그룹을 중심으로 추가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탈당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양형일(광주 동), 주승용(여수 을), 우윤근(광양 구례) 의원이 탈당 대열에 합류했으며 유선호(영암·장흥), 김태홍 의원은 (광주 북 을) 오는 8일 탈당, 탈당파 의원들이 구성된 원내교섭단체에 합류할 전망이다. 국회 의석분포는 재적의원 296석 가운데 한나라당 127석, 열린우리당 110석, 민주당 11석, 민노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34석 등 다당제 구도로 재편됐다.

한나라당은 3년 만에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되찾은 반면 17대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거머쥐었던 열린우리당은 제2당으로 추락, 의회 권력은 보수 진영으로 넘어갔다. 특히, 탈당파 의원들을 이번 주말 영동연, 천정배 의원 등 기존 탈당파 의원들과 워크숍을 가진 후 다음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과 통합신당 창당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물론 대선정국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탈당한 의원들은 김한길 강봉균 김낙수 노용래 노현송 박상돈 변재일 서재관 양형일 우윤근 우재창 우재환 이강래 이근식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조배숙 조일현 주승용 최규식 최용규 의원 등 23명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넘어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안기업도시 내년 착공 가능

中 정부, 중국기업 15억弗 투자 승인

중국정부가 무안 한·중 국제산업단지 내 중국기업의 투자를 승인, 내년 상반기 중에 무안 기업도시 착공이 가능해 됐다. 주한 중국대사관 전조우 공사는 6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중국 동태화국제유한공사가 무안기업도시내 600만평 부지에 사업비 15억달러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광그룹과 중경시 지산집단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동태화국제유한공사는 지난해 중국정부에 무안기업도시 투자계획을 신청, 해외투자를 관장하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위원장 마커이 주임)의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중국정부 승인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한중국제산업단지 건설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지난달 31일자로 중국 광그룹과 지산집단이 8천억위 투자해 건설하는 한중국제산업단지 내 600만평 부지에 대한 중국정부의 최종 승인 서가 무안군에 통보됐다"면서 "최근 중국 산동성도 무안군과 60만평 전용경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황해 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장애아 2010년부터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빠르면 2010년부터 장애아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 명속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의무교육을 받아온 장애학생들이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이 의무화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취학이 이뤄지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력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한결을 한결을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비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약력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람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